

『출항』: 젊은 여성의 ‘출항’과 욕망의 문제

김 금 주

I

신여성이 등장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해방을 주장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었지만, 20세기 초의 영국은 이러한 여성들을 통제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특히 보어 전쟁을 겪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헤게모니를 다투는 보어인들의 도전이 위협을 느끼자, 영 제국은 더욱 여성들의 어머니로서 임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경쟁국에 대항하고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 영국은 자국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조화로운 가정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Mackay and Thane 192-93). 이러한 제국주의의 담론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제한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성규범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당대의 문화적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울프(Virginia Woolf)는 여성의 욕망이 억압되고 침묵 속에 가려져 재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울프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Professions for Women”)에서 여성작가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 여성의 육체와 정열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당대에는 여성으로서 말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여성으로서 말하기에 부적절한 육체, 열정에 관해 생각했다. 그녀의 이성이 말하기를, 남성들은 충격 받을 것이다. 남성들이 자신의 열정에 관해 진실을 말하는 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여성은 예술가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꿈결의 황홀함은 끝났다. 그녀의 상상력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다. (1979, 61-62)

울프는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통제하는 남성중심의 상징질서에 의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행사되어, 폭력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강조한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의 힘을 깨닫고 있었다. 비록 씨수(Hélène Cixous)처럼 여성들에게 “너 자신을 써라, 너의 육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338)라고 말하며 남성 중심의 상징질서에 맞서는 여성적 글쓰기를 강조하지 않지만, 울프는 여성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세계를 회망한다. 그리하여 울프는 자신의 작품에서 남성 중심의 상징질서를 공고히 하는 라캉(Jacques Lacan)이 제시한 환상(fantasy)¹⁾의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라캉의 이론에서 주체는 “대타자 속의 간극과 비밀관성을 은폐하고 극복하려는 시도”(Žižek 1989, 124)에서 환상을 창조함으로써 지배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 환상은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설명한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지탱한다(1989, 30-33). 울프의 글쓰기 과정은 이러한 환상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여성에 대한 상징적 폭력을 지탱하는 근본을 흔들리게 하는 과정이다.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대한 울프의 비판적 목소리는 울프의 첫 소설, 『출항』(*The Voyage Out*)이 발표된 후 그녀의 작품에서 꾸준히 드러난다. 특히 『출항』에서 울프는 성인으로서 세상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는 넓은 세상으로의 출항이 과연 젊은 여성인 레이철에게 스스로의 욕망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울프는 순진한 처녀 레이철이 남성 중심적인 상징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임을 강조한다. 레이철의 자유를 향한 욕망은 스스로를 고정된 상징계의 형식의 테두리 속에 가

1) 라캉은 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Che Vuoi?'에 대한 응답으로서 환상에 대해 「프로이트의 무의식에서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The subversion of the subject and the dialectic of desire in the Freudian uncscious")에서 도표 3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1977, 312-16).

두려 하지 않는 태도에서 표출된다. 그러나 울프는 이 여성의 영혼의 자유로움이 20세기 초반의 영국 사회에서는 억압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레이철에게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세상으로의 항해조차 남성 중심적이며 제국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들에 의해 그녀의 삶을 통제하는 경향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이철의 출항이 그녀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열려진 가능성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창조성을 마모시키고 제한하는 남성 중심적 영국사회의 폐쇄성으로 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여성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 결국 그녀가 머물러야 할 곳이 남성 중심의 상징질서에 의해 제한되는 좁은 울타리 안이 되고 만다면 그러한 삶은 여성에게 창조적 역동성을 상실한 죽음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영혼의 자유를 원하는 레이철의 욕망은 남성 중심의 상징질서 속에서 침묵될 수밖에 없으며, 레이철의 죽음을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앞으로 겪게 될 전망 없는 삶에 대한 작가의 상징적 대응으로 보고자 한다. 울프가 이 소설을 로맨스 플롯의 관습에 따라 구애와 결혼으로 귀결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이철은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라는 환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인물이므로, 낭만적 환상의 허구에 안주할 수 없는 그녀에게 결혼은 그녀의 삶의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II

19세기 전반을 통하여 영국에서 출판된 여러 종류의 대중적 모험이야기들은 영국 제국주의를 찬양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 영국 제국주의 담론에서 제국이 남성적인 것과 결합되었는데, 대중 소설들은 남성성을 고취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주로 아프리카인 등 미지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당시 인기 있었던 탐험소설들에서, 탐험가들은 반드시 야만인들을 발견하고 정복해 노예로 만들도록 설정되었다. 힘이 남성성과 동일시되고, 투쟁과 탐험이 식민화의 고정된 틀로 인식되었다(박지향 151).

울프는 『출항』에서 탐험과 항해에 관한 남성 중심의 제국주의적 서사를 전복하여, 남성적 모험과 계몽의 이야기를 변화시킨다. 그녀는 여성에게 세상으로의

출항이 남성과 달리 자기 성취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그 향해가 남성중심의 상정 질서에 의해 통제될 때 여성의 욕망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피치(Linden Peach)가 지적 하듯이 “남성에게는 밖으로의 향해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결혼과 가사일 안으로의 향해”만 있을 뿐이며, 이 소설에서 여성과 제국은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41). 당시 제국주의적 정서를 앞세웠던 영국은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과 아이의 양육에 한정시키는 일을 강화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제국주의적 정서는 188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고(Mackay and Thane 203), 이때에 새로운 군국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가 대두하였다(Peach 25). 한편 이 시기에 신여성들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사회에서는 해방된 여성들이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자유롭게 연애하여 아이를 갖거나, 혹은 전혀 아이를 갖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이 표출되었다(Showalter 1990, 3). 특히 제국의 영토확장의 목표를 실천할 제국의 전사를 키워내기 위해 여성의 역할이 기대되던 시기에, 신여성이 표방하는 여성의 자유에 대한 호소는 억압되어야 했다. 그리고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기회가 확대 되어 소매업이나 점원, 교사의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고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Lewis 1, 3), 제국은 이러한 여성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899년 보어전쟁 발발 당시 지원병들 1000명 가운데 330명이 거부되었을 정도로 영국의 대중들이 열악한 건강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출산율조차 감소되자, 본국과 식민지에서 영국인의 인구감소로 다른 인종들이 영국 사람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박지향 176). 따라서 이 당시 영국 여성들에게 영국의 인종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이 강요되었고, 여성들은 그들의 욕망을 억압하는 이전 시대인 빅토리아 시대의 담론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의 교육의 목적이 여성들에게 “더 좋은 청자, 더 좋은 아내와 어머니, 더 품위 있는 가정의 창조자, 문명에 대한 더욱 매력적인 장식품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도록 권장”한 것처럼(Gorham 6장; Froula, 5에서 재인용), 레이철도 이러한 여성의 운명을 따르도록 기대되는 듯하다. 레이철의 아버지인 윌로우비 빈레이스(Willoughby Vinrace)는 딸에게 기대하는 장래의 삶에서 자신을 위해 딸의 희생을 자연스럽게 요구한다. 그는 레이철의 이모, 헬렌 앰브로우즈(Helen Ambrose)에게 레이철의 장래를 의논하지만, 그는 딸을 마치 보

수당 안주인 역할을 하게 하여 자신의 “사업상 거래에 도움을 줄 상품”으로 생각할 뿐이다(Williams 35).

“나는 그 아이를 아이 엄마가 바라는 대로 키우고 싶소 ... 그 애는 아직까지 행복하고 우리는 리치먼드에서 조용히 살아왔소. 나는 그 애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도록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애를 데려갈 겁니다. 내 누이들은 리치먼드에 있게 하고 런던에 집을 세 얻어, 나를 위해 그 아이에게 친절하게 할 만한 한두 사람을 만나게 할 생각입니다. 난 깨닫기 시작했어요 ... 이 모든 일이 의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이것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델러웨이 씨(Mr Dolloway)와 이 점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레이철이 더 많은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여흥도 필요할 겁니다—만찬, 때때로 저녁 모임 말입니다. 선거 구민들은 즐거운 일을 좋아한다고 믿어요. 이 모든 방식에서 레이철이 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²⁾

윌로우비의 딸에 대한 태도는 백인 주인을 위해 인종적 타자의 노동을 당연히 요구하는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그가 정기적으로 런던과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왕복하여 교역을 통해 제국의 자본을 축적하는 일은 인종적 타자를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헬렌에게 보낸 딸의 안부를 묻는 편지에서 남미 원주민들의 폭동을 그가 몸소 제압하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힌다. 그는 이 편지에서 원주민들에 대해 “그 거지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위한 분별이 있었다”(221)고 언급 하면서 원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을 정당한 권리에 대해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폭동으로 간주하고 무시해버린다.

제국주의적 남성 중심의 상징질서가 인종적 타자의 권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듯, 이 상징질서가 여성을 교육하는 방식은 남성의 편리를 위해 남성에게 의해 조정되는 문화에 맞추도록 여성을 훈련시켜 여성의 성장을 차단하는 방식이다(Fullbrook 90). 레이철도 그녀와 같은 계층의 여성들처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쓸모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녀는 “19세기 후반 대부분의 부유층 소녀들이 교육받은 것처럼 교육받았다. ... 그러나 그녀가 세상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제는 없었다. 그녀의 정신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초기의

2) Virginia Woolf, *The Voyage Out* (Oxford: Oxford UP, 1992), 92-93.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본문에서 괄호 안에 쪽수로 표시한다.

지식인의 상태였다”(31). 어느 정도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레이철의 이모 헬렌은 여성도 적절하게 교육받는다면 남성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104). 그러나 울프는 남성 중심적 제국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남성과 같아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육’받는 것이 오히려 여성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은 울프가 『3 기니』(*Three Guineas*)에서 경고한 것으로 교육받은 여성들이 흔히 남성들이 전문적 직업의 세계에서 가지게 되는 ‘소유욕, 질투심, 호전성, 탐욕’에 빠지게 되는 일이다(275). 이와 같이 인종적, 성적 타자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조장하는 교육은 여성의 정신적 성장에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레이철은 항해에서 그녀보다 우월한 교육을 받은 남성들로부터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얻기보다 그들에 대한 적대감과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을 교육에서 배제하는 현실은 그들의 자립을 제한하여 가부장에 대한 종속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미래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었다.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레이철이 앨런 양(Miss Allan)처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독신 직업여성처럼 앨런도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20세기 초 교육받은 여성들의 임금은 제한되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견뎌내야만 했다. 비시누스(Martha Vicinus)에 따르면 20세기 초까지 영국 중산층 독신 여성들은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 여자대학들이 번창하였고, 새로운 고등학교와 기숙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일반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여성들이 공헌하였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을 조롱하였고, 방탕한 젊은 숙녀들이 남자 형제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독립의 상징인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의 열쇠를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20세기 초반 중산층 독신 여성들은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영국 여성들은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한 상황으로부터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247). 이러한 현실에서 앨런에게 휴가는 15년간 노동한 결과로 한 학기 동안 일을 쉬는 것을 의미했고 휴가의 비용은 그녀에게는 값비싼 것이었다(200). 미혼임에도 직업이 없는 수잔 워링턴(Susan Warrington)의 경우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며 고독하게 살아왔으며 그녀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이모인 펠리 부인(Mrs Paley)에 의해 하녀처럼 취급받아왔다. 이러한 그녀에게 결혼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된다. 아서 베닝(Arthur Venning)과의 약혼은 그녀가 그동안 참아내야 했던 삶에 대한 불안을 해

소하는 것이 된다(201-202). 레이철의 미래도 수잔처럼 결혼으로 귀결되어 가는 듯하다. 헬렌이 레이철이 결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도 쏰베리 부인(Mrs Thornbury)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그들의 생계를 위해 벌고 있는—, 그것은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힘들죠”(127)라는 대안을 찾기 힘든 여성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출항』은 19세기 전통적 소설의 결말처럼 결혼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듀플레시스(Rachel Blau DuPlessis)가 지적한 것처럼 레이철의 죽음은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의 운명에 저항하는 여주인공이 맞이하는 비극적 형벌로서의 죽음과도 다르다(51). 한편으로 레이철의 죽음은 여성에게 제시된 운명에 대한 서사적인 거부의 행위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죽음은 여성에게 결혼이 상징적 죽음이 되어, 그녀의 욕망을 침묵하게 하는 죽음의 상태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로맨스 플롯이 결혼으로 귀결되는 경우, 결혼 후 여주인공의 욕망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올프는 이러한 욕망의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종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형식을 통해 여전히 결혼이 여성의 욕망에 반하는 남성 중심적 제도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레이철은 처음 유프로신(Euphrosyne)호에 승선할 당시 순수하고 무지해 보이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녀에게는 주어진 삶의 고정된 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레이철은 실용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신 오래 생각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색에 몰두할 수 있었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일상적 삶의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곤 했다. 한 때 레이철은 그녀의 고모와 그들의 관점, 그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들이 살아가는 체계를 낯설게 느끼게 되는, 상징계의 틈을 느낀다. “그녀는 그녀의 고모가 말했을 때 왜 갑자기 그들이 그 내부에서 살았던 전 체계가 그녀의 눈앞에서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어떤 이유 없이 여기 저기 널려있는 의자나 우산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34). 레이철이 주어진 삶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면은 자신과 달리 성적 타자로서 여성의 삶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성을 타자로 만드는 사회적 환상에 의지하는 영국인들을 만나면서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다.

순진하며 세상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살아온 레이철에게 처음으로 매력

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리처드 델러웨이(Richard Dalloway)이다. 상류층 신사이며 한때 보수당 의원이기도 했던 자신감 넘치는 델러웨이는 레이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델러웨이가 추구하는 이상에서 레이철과 같은 여성의 행복은 배제된다. 그가 강조하는 ‘통일성’(unity) 즉 “목적, 지배, 진보의 통일성.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최고의 이상을 퍼뜨리는 것”(67)에서 성적, 인종적 타자의 권리와 욕망은 남성중심적인 제국주의의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의 욕망을 창조한다. 델러웨이와 같은 자에게 여성의 임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하얗고 기록에서 더 순수한”(67) 영국인들을 재생산하고 가사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기 전에 나를 무덤 속에 있게 하소서!”(42)라고 말하는 델러웨이는 그의 “아내에게 결코 정치에 관해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다만 아이를 돌보고 자신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제공하는 등의 가사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라 생각한다(68).

제국의 이상을 위해 여성과 인종적 타자가 그들의 자유를 희생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델러웨이의 이상인 통일성은 이러한 타자들을 배제시키거나 억압하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유지시키는 라캉이 의미하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 환상은 “각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상보적인 사회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구축”하여(Žižek 1989, 126), 델러웨이가 말하듯 전체의 작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완전성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내지만, 이러한 완전성은 타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은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부분과 전체에 관한 델러웨이의 논리에 따르면 유기적 전체의 성공이 부분에게도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완전한 통일성에 관한 환상이 불완전하고 균열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레이철은 델러웨이와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는다. 헬렌이 보기에 여섯 살 아이처럼 느껴지는 레이철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무지했다. 레이철은 2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여성에게 지켜야 할 도덕과 같은 것이 있는지조차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32). 남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것처럼 보였으며(85), 아직까지 남자가 여성을 욕망한다는 사실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헬렌이 설명할 때까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도 몰랐다(105). 이러한 레이철에게 델러웨이의 갑작스런 키스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 된

다. 또한 레이철은 델러웨이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여성성과 여성의 육체를 한정짓는 남성 중심적인 상징질서가 자신의 삶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다.

남성 중심의 상징질서는 재생산 능력을 위해,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적절성과 건강함을 유지시키도록 여성들을 관리해왔고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해왔다. 푸꼬가 설명했듯이 '섹슈얼리티'는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말로, 오늘날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인 '성적인 혹은 성을 갖는 성질'과 유사한 의미로 널리 사용된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이러한 의미는 왜 여성이 남성에게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질병에 취약한가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의해 설명하려고 하는 1889년의 한 책에서 나타난다(Heath 7-16). 당시에 여성에게 섹슈얼리티는 해결되어야 할 근심거리이며, 통제되지 않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정신이상의 결정적이고 주요한 징후로 여겨졌다(Showalter 1985, 74). 그리하여 여성의 욕망은 남성 중심의 문화에 의해 은폐되고 침묵되어, 씩수의 표현처럼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로부터 쫓겨나, 수치스럽게도 이 육체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성적 수줍음으로 이 육체를 공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342). 이런 점에서 페퍼 씨(Mr Pepper)가 바다 밑에 살고 있다고 추측하는 괴물의 존재는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경험을 묻어두고 사는 여성들의 존재를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페퍼씨는 계속해서 바다 밑 모래 둔덕 위에, 머리털이 없이 눈이 멀어 누워있을 하얀 괴물들을 묘사했다. 만약 당신들이 이들을 물 위로 끌어낸다면 폭발할 것인데, 압력이 덜해져 옆구리가 터져 조각나고 창자가 바람에 흩날릴 것이라 하면서 ... (19)

너무 오랫동안 바다 깊은 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바다 괴물은 바깥으로 나오면 압력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고 만다는 것인데, 침묵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여성이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 이와 같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레이철이 델러웨이의 갑작스런 키스를 받았을 때, 바로 이러한 폭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델러웨이와의 키스 직후 처음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눈뜨게 되면서, 레이철은 평화롭고, 동시에 기묘하게 고양되는 감정에 사로잡힌다. 레이철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따라서 그녀는 삶이 그녀가 추측하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느낀다(80). 레이철은 헬렌에게 이 사건에 대해 털어 놓으며, 그를 좋아했고, 델러웨이와 얘기 나누고 싶었으며, 그가 하는 일을 알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키스를 받는 것이 좋았지만, 동시에 레이철은 남성은 짐승이고 그래서 남자를 증오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85, 87). 레이철은 이 사건 후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점차 분명해지며, 그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감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레이철은 한편으로는 자신 속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자 기쁨과 흥분으로 고양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육체로만 한정되는 듯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레이철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 프로러(Christine Froula)는 레이철이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눈뜸에 반응하며, 부정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욕망의 경제에서 남성적 특권의 실행에 반응한다고 지적한다(67).

자신의 육체가 성적인 대상으로 물화 되었다는 느낌으로 불안해하는 레이철은 성적인 대상의 대표적인 예인 창녀를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과 연관성을 찾는다. 그녀는 헬렌에게 피카딜리(Piccadilly)에 있는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며, 그들이 창녀라는 사실을 끄찍하게 받아들인다(86). 레이철이 자신을 창녀와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뿐 아니라, 남성을 유혹한 대상으로도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델러웨이는 자신이 레이철에게 키스한 후 “당신이 나를 유혹했소”라고 말하고 있다(80). 남성 중심의 욕망의 경제 체제에서 창녀만이 남성 욕망의 물적 대상은 아니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는 『하나이지 않은 이 성』(*This Sex which is not One*)에 수록된 「시장에 나온 여성들」(“Women on the Market”)에서 여성은 남성의 욕망에 따라 여성 자신의 고유한 속성과 상관없이 상품으로서의 육체가 되어 교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70-91). 여기에서 여성 자신의 쾌락과 욕망에 대한 권리는 없다. 이리가라이는 여성들이 “소비자에게는 자연적, 모성적인 육체이며, 의심할 바 없이 유용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가능한 정체성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다(186, 188).

레이철은 델러웨이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날 밤, 처음으로 섹슈얼리티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발견하고 흥분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육체가 물화되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억압받고 통제되는 상황에 대한 레이철의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레이철의 무의식은 그

녀의 꿈속에서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긴 터널 아래로 걸어가고 있는 꿈을 꾸었다. 터널은 점점 좁아져 그녀는 양 측면에 있는 축축한 벽들을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드디어 터널은 넓어지고 천장이 둥근 방이 되었다.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이 갇힌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곳마다 벽돌이 있었으며,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고 있는 긴 손톱을 가진 기형의 남자와 홀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곰보자국이 있었으며, 동물의 얼굴과 같았다. 그의 뒤에 있는 벽에서 숨기가 스며 나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조용하고 차갑게 누워있었고, 침대를 가로질러 몸을 뒤척이다 악몽에서 깨어나 “아악!”하고 소리칠 때까지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쫓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일어나 문을 잠갔다. 목소리가 그녀를 향해 신음했고, 눈이 그녀를 욕망했다. 온 밤 내내 야만적인 남성들이 배를 공격했다. 그들은 통로 아래를 발을 질질 끌면서 왔고, 그녀의 방문에서 멈춰 코를 킁킁대었다. (81-82)

그녀의 꿈에서 남성의 폭력성이 도사리고 있는 억압된 삶의 현실이 좁고 축축한 담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으로 상징화 된다. 동물과 같은 얼굴의 기형적인 남자의 모습을 통해 남성의 야만적 폭력성이 비유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기형적 인물은 남성의 성적 폭력성에 대해 레이철의 공포가 투사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레이철 자신의 성적 욕망이 검열을 피하여 기형적이고 야만적인 남성으로 전치(displacement)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델러웨이는 레이철을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에 눈뜨게 하였지만,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키스함으로써 그녀에게 남성의 성적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레이철은 이 사건으로 성적 욕망에 대한 끌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그녀의 꿈 속에서 나타난 기형적이고 동물적인 남성의 이미지는 그녀가 델러웨이와 키스 이후 느끼게 된 자신의 성적 욕망이 전치되어 표출된 것이다. 꿈에서 레이철의 욕망은 델러웨이를 향해 있다기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찾지 못한 그녀의 성적 욕망 그 자체가 검열을 피하여 표출된 것이다. 로런스(Patricia Ondek Laurence)는 델러웨이와 관련된 레이철의 억압된 성적 소망이 그녀의 꿈에서 동물적으로 과장되고 기형적으로 나타난 이미지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150).

레이철은 남성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표현되면서 자신의 육체성이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폴브룩(Kate

Fullbrook)은 레이철이 타자로서 남성성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자신과 여성성, 섹슈얼리티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레이철에게 자신의 육체를 두려워하게 만든 교육의 효과로 심리적 혐오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92).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걱정스럽고 침묵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더욱이 처음으로 섹슈얼리티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그녀를 대상화시키는 폭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이철에게 그녀의 육체적 욕망은 더욱 부정해야 할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레이철의 꿈에서 그녀가 느끼는 남성의 성적 폭력성과 야수성, 이 남성들에 의해 자신의 육체가 대상화 된다는 그녀의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은폐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중층결정되어(overdetermined), 꿈속의 환영을 통해 응축(condensation)되어 나타나 있다.

그런데 레이철이 자신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부정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녀가 남성 중심으로 편향된 대타자의 욕망에 예속됨으로써 라캉이 설명한 소외(alienation)를 경험하는 것이다.³⁾ 그러나 상징화를 거부하는 실재(the Real)로서 육체성이 레이철을 혼란스럽게 한다. 인간의 육체는 언어에 의해 덧씌워진 약호화 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리비도적인 공간이며(맹정현 487), 상징화를 거부하는 실재로서의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⁴⁾ 그녀에게 자신의 육체는 상징계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자유로운 것이다. 따라서 레이철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남성 중심적 환상이 강요하는 억압에 대항하여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레이철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기회인 삶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높은 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몰리다가, 여기서 길을 잘못 들고 저기서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영원히 지루하고 무력하게 된 채,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으로 보였”지만(87), 곧 그녀는 제한된 형식에 의해 폐쇄될 수 없고, 어떤 상징적 동일시에도 소외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3) 대타자의 욕망과 소외(alienation)에 관해서 라캉의 다음 글을 참조할 것(Four Fundamental Concepts 203-15).

4) 페터 비트머는 육체의 이러한 점을 라캉의 실재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주체의 육체성’은 라캉의 개념들에 따르면 ‘실재’에 속한다”라고 지적한다(비트머 79).

레이철은 그녀 자신의 개성에 대해, 어떤 것보다 다르며, 바다와 바람처럼 합쳐질 수도 없는 진정 영원한 것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자, 그녀는 살아있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되었다.

“나는 ...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더듬거렸다 “당신이나, 델러웨이 씨, 페퍼 씨, 그리고 아버지와 이모들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들과도 상관없이?” 그녀는 정치가와 군인들에 관한 전체 페이지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90)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억압하는 현실 사이에서 레이철이 느끼는 균열은 남미의 휴양지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남미의 휴양지는 레이철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장소로 제공되지만, 레이철은 그녀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새로움을 느끼기보다 권태로움을 느낀다. 레이철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영국인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이철은 그들이 “목적 없고, 사소하며, 의미 없이” 가벼운 농담이나 잡담을 하며 오후의 공허함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끔찍하다는 느낌을 가진다(306). 점차 레이철은 여행에서 정신적 성장과 교육의 기회가 아니라 여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영국사회의 남성중심적 상징질서의 실체에 접하게 된다.

이 여행객들 가운데 레이철에게 교육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인트 존 허스트(St. John Hirst)는 그 자신의 제한된 기준만으로 여성을 평가하여, 레이철에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보다 여성으로서 열등함을 주시킨다. 비록 레이철은 허스트가 보여준 그녀의 무지를 조롱하는 듯한 무례와 오만에 분노하지만, 그가 기본(Gibbon)의 『로마 제국의 역사』(*History of the Roman Empire*)를 빌려주었을 때 그녀는 기쁨에 사로잡히며 그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로 흥분한다(194-96). 필립스(Kathy J. Phillips)는 『출항』에서 당대의 제국주의적 역사적 사건이 암시되는 상황에서 기본의 역사책을 인용한 부분이 많은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울프는 고대 로마와 근대 영국의 제국주의적 상황을 병치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64-65). 허스트는 레이철에게 이러한 기본의 역사책의 내용보다는 스타일과 문장이 완벽하다고 칭송할 뿐이다. 플러싱 부인(Mrs Flushing)은 기본의 또다른 역사책인 『로마제국의 쇠퇴와 몰락』(*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을 언급하지만, 그녀는 “기독교인의 학살에 관해” 기본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뿐, 그 역

사에서 나타나는 제국의 침략과 약탈, 몰락의 과정에 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 플러싱 부인과 쏜베리 부인과 같은 여성들은 로마제국처럼 영국제국도 정당하지 못한 영토확장과 몰락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레이철은 기본의 책에 대한 적절한 안내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책에 흥미를 잃고 기본의 스타일과 문장의 완벽성에 대한 인식여부로 그녀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허스트에게 저항한다(226). 이 과정에서 허스트는 레이철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데 적절한 안내자가 될 수 없는 편견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레이철이 호텔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대 영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순응한다.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비판적인 태도가 델러웨이와 같은 남성이 주장하는 제국주의 논리를 유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레이철은 사람들의 종교적 태도에서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면을 보게 된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서 재현된 이질성을 배척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복종을 강요하는 '전환'(conversion)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제국의 식민지에서 인간의 영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레이철은 남미의 교회에서 이러한 전환이 힘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다. 교회의 목사인 백스 씨(Mr Bax)는 피상적으로는 남미를 방문한 사람이 여가를 즐기는 것이 원주민들의 의무적인 일에도움 받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똑 같다고 말하며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난 듯하다. 하지만 그의 원주민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친구의 말처럼 "영국인이 원주민에 대해 채택한 엄격한 예의의 규약"을 실천한다는 환상과 우월감에 불과하다(267). 그의 설교에서는 식민지인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제국주의의 담론이 표출된다. 백스 목사는 구약의 시편에서 다윗(David)이 다른 종족은 야만인이며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인용한다. "그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는 매일 나와 싸우고 나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 속에서 이를 깨트리고, 사자의 턱뼈를 부수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빠르게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263). 영국 사회에서 교회는 이렇게 인종적 타자를 배척하는 담론을 이용하여, 제국의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식민화의 작업을 잘 포장하는데 공모하였다(Phillips 60). 레이철은 식민화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설교가 선을 재현하리라는 점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바느질하는 여인이 매트의 추한 무늬를 아무 의심 없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같다고 느낀

다(264).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종교는 완전한 선을 재현하는 환상이며, 그들은 그 환상의 완전성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영국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온 성차에 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환상은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의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켰다.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남성 중심의 환상은 델러웨이와 같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 자신의 공모에 의해 유지되며 강화되었다. 델러웨이의 부인 클러리서(Clarissa Dalloway)가 남성의 우월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간호원인 맥킨니스(McInnis)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보이는 “노예 같은 순종”(265)과 다르지 않다. 그녀는 남편의 박식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송한다.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50). “딕(Dick), 당신은 나보다 더 나아요. 난 겨우 한 곳만 보는데 당신은 두루 보네요.” “딕,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점은 당신은 언제나 한결 같다는 점이지요. 난 분위기에 좌우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52). 그리고 엘리엇 부인(Mrs Elliot)과 같은 여성이 “지식은 여성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127)라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지적인 세계와 전문적 일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그들은 울프가 언급한 남성을 두 배로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며 남성 중심의 상징질서를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여성은 이 모든 세기 동안 남성의 모습을 원래 크기보다 두 배로 확대 반사시켜주는, 마술적이기도 매력적인 능력을 소유한 거울로서 이바지해 왔습니다.
(1992, 45)

울프가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강조한 이 거울은 남성들이 그들의 지배욕과 권력 유지를 위한 욕망에서 만든 것이다. 울프는 남성들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왔으며, 이것이 뭔가 정복하고 지배해야만 하는 가장에게 실제로 그의 권력의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였다고 말한다(45). 그리하여 울프는 여성들의 열등함이 남성들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설명한다(46).

호텔의 대부분의 여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관습적이고 순응적인 태도에 저항하는 여성으로 에블린 머거트로이드(Evelyn Murgatroyd)가 등장한다. 에블린의 태도에는 당대의 저항적인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백인의 노예 매매, 여성의 참정권, 보험 증서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은 정치가와 관료들에게 맡기기보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직접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일을 위해 남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288-89). 그러나 에블린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자기만족의 차원에 머무는 피상적인 희망일 뿐이다. 그녀는 레이철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며, 진실한 것이라고 지적하지만(290), 그녀 자신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식민지 정복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말한다(216). 그리고 알프레드 페럿(Alfred Perrott)에게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군대를 일으켜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그것을 멋지게 만들 거예요”라고 자신의 야심을 드러낸다(151). 에블린의 이러한 태도는 제국의 이상을 넓은 세상에 전파시키겠다는 지배와 진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델러웨이의 제국주의적 신념과 다르지 않다.

백인 여성들은 여성성에 관한 담론과 제국주의 담론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단순히 가부장제의 수동적인 희생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주체이기도 했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조차 여성성에 관한 담론에 저항하면서도 인종적 타자를 억압하는 제국주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 참정권론자인 팅크허스트(Christabel Pankurst)는 터키에서 혁명의 결과 터키 여성들이 새로운 개혁위원회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당혹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1908년 『여성들을 위한 투표』(*Votes for Women*)의 사설에서 “서양의 자매들이 아직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을 때, 동양 여성들이 정치적 평등이 주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Burton 149). 울프는 트랜수(Pamela J. Transue)의 주장처럼 인간 정신을 살려주고 확장시키지 않는 닫힌 체제로서의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23-24). 그리하여 그녀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의 삶 대신 호전적인 공적 세계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에블린과 같은 여성의 딜레마를 『3기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 뒤에는 무가치하고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이며 비굴한 가부장제도, 사적인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강한 소유욕과 질투심, 호전성, 그리고 탐욕을 가진 공적 세계, 직업의 체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불운한 선택입니다. 둘 다 나쁘니까요. 우리는 차라리 경기를 포기하고 인간 삶의 전체가 잘못된 것임을 선언하고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 다리 너머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261)

여성들의 선택은 이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없다. 두 영역 모두 그 체제들을 관통하는 억압과 지배의 논리로 타자화된 인간을 창조하여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레이철은 여행을 통해 당시 영국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 현실의 실체에 직면하게 된다. 그 현실의 핵심에는 성적, 인종적 타자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존재한다. 레이철은 영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호텔 투숙객들과 델러웨이를 억압적인 존재로 느끼고,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그녀는 그 모습이 매우 싫었다—교회, 정치가, 부적응 자, 엄청난 사기—델러웨이와 같은 남성들, 백스 씨와 같은 남성들, 에블린과 그녀의 수다, 통로를 막는 펠리 부인 ... 처음으로, 그녀 자신의 욕체가 세상에서 모든 삶의 원천이 되었고, 이것은 여기—저기에서—튀어나왔지만, 이제 백스 씨에 의해서, 에블린에 의해, 전 세상의 무게인 육중한 어리석음의 부담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리하여 뒤틀린 채, 그녀는 자신의 양손을 함께 비틀었다.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300-301)

레이철은 여성의 삶에 억압적인 환상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녀의 욕망이 점점 선명해진다. 레이철은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녀는 “그런 일을 하는 자유를 사랑한다. 그것은 바람이나 바다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248). 레이철이 보여주는 고정되고 닫힌 형식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그녀에게 새롭고 다양하며 열린 공간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그녀는 무도회에서 음악이 끊어지자 춤곡이 아닌 곡을 대담하게 변형시켜 “스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하며 춤출 수 있게 연주해낸다(185-86). 레이철은 자신의 연주로 무도회장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형식의 춤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춤을 창조하게 하면서, 자신이 자유로운 바다의 흐름에 몸을 맡긴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녀는 연주를 끝낸 뒤 헬렌에게 “나는 바다 밑의 물고기인 것처럼 느껴져요”(189)라고 말한다. 레이철에게 바다, 바람, 하늘, 빛의 이미지는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뜻한다.

호텔의 다른 영국인들과 달리 레이철이 보기에 테런스 휴엣(Terence Hewet)은 여성의 삶의 억압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여성들이 언제나 남

성의 관점에서만 재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과 욕망에 대한 소설, 즉 “침묵에 관한 소설”(249)을 쓰기를 희망한다. 어쩌면 “20세기 초반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여성도 혼자 나타나거나 어떤 것도 말한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이 기묘한 침묵 속에 재현되지 않은 삶이 배경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어요”(245)말하는 테렌스와 결혼이 여성으로서 레이철에게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 그녀가 가진 창조성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레이철이 약혼자인 테렌스와 나누는 대화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견해차를 엿볼 수 있다. 레이철은 스스로를 제한된 정체성에 고정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그녀가 파악하는 주체는 빛의 흐름처럼 제한된 형식 속에 한정되지 않는 라캉이 설명한 환유(metonymy)⁵⁾의 상태로 유동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녀는 바다와 하늘 같이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무한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동경하며, 이 대상들의 특성처럼 유동하며 자유로운 주체가 되기를 욕망한다. 레이철이 욕망하는 이 주체는 들뢰즈와 가타리(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가 주장한 ‘유목민’(the nomad)의 특성을 보인다. 즉 그들이 노마디즘(nomadism)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주체는 “안정된 것, 영원한 것, 자기 동일적인 것, 항상적인 것과 대립하는 생성과 이질성”의 특성을 지니며(361), 경계를 가로지르며 정해진 목적지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Braidotti 22-23).

그녀의 생각과 달리 테렌스는 “나는 견고함을 느껴요. 무한한 견고함을. 내 의자의 다리가 대지의 내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말이오”(341)라고 말한다. 견고한 형식을 강조하는 테렌스는 레이철을 상징질서의 정해진 형식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레이철은 자신의 입장이 확고하다. 휴엇의 관점에서 보면 “삶을 이성적인

5) 환유와 은유(metaphor)에 대해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이론을 전유한 라캉에 의하면 환유는 하나의 의미사슬에서 인접성과 문맥상 관련있는 기표들이 연결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Evans 113). 라캉에 의하면 환유에서 기표와 기표를 결합하는 의미화의 기능은 의미의 발생에 저항하여 의미를 유보시킨다. 그리고 라캉은 직접적 유사성의 관계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 사슬에서 한 기표가 다른 기표로 대체되면서 의미의 저항선을 넘어 의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은유라고 주장하였다(1977, 164). 이 은유도 의미를 가지려면 의미의 사슬에서 기표들의 연쇄과정에서 일어나는 환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77, 166; 1993, 229).

것으로 만드는 질서, 양식이 있다 ... 한 번 그러한 하나의 끈에 의해 함께 연결된다면 그녀는 그들이 분리되고 끔찍한 것이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와 다름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레이철은 “인간은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만큼 다양하다”는 자신의 믿음으로 테런스의 견해에 저항한다(348-49).

남성 중심적 상징계의 법에 스스로를 동일시하려 하지 않는 레이철은 관습적인 사랑과 결혼의 형식을 거부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레이철은 테런스에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나는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요”라고 말한다(342). 테런스가 생각하기에도 그녀는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어 보인다. “그녀는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다—바다, 하늘”(352). 그녀는 비록 자신이 테런스와 결혼하여 오랜 시간 친밀하게 같이 살더라도 그녀는 그와 독립되어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것에도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367-68).

레이철과 약혼 후 테런스는 점점 관습적인 남성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화자는 레이철과의 약혼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원한다(342). 레이철에게 약혼은 테런스가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된다. 그녀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런스는 그녀에게 약혼 축하편지에 답장을 쓰게 한다. 그는 자신의 소설 창작에 필요한 독서에 몰두한다. 그는 레이철과 결혼한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284),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틈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레이철은 답장을 쓰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과 편지지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며, 테런스조차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344-45). 레이철이 느끼는 이 괴리감은 그녀가 결혼하여 그녀의 삶이 여성적인 일에 제한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여성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며 그들의 침묵된 삶과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테런스의 의도가 결실을 이루기에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성차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벽이 지나치게 단단하다. 레이철의 정신적 성장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듯한 테런스도 성차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며, 적절히 교육받으면 여성도 남성과 같아질 수 있다는 헬렌의 생각은 여성이 처한 모순적 현실을 극복하기에 미약한 대안이다. 남미로의 여행에서 자신이 어떤 형식에 의해 구속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레이철에게 테런스와 결혼은 그녀의 자유로움에 대한 확신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

레이철은 열병의 상태에서 여성의 욕망을 제한하는 남성 중심적인 체제에 대한 그녀의 무의식적 두려움뿐 아니라 분노를 표출한다. 그녀는 테런스가 암송한 밀턴(John Milton)의 시 『코머스』(*Comus*)를 들은 후 이러한 감정을 드러낸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고귀한 요정이 있어,

그가 읽었다,

축축한 고삐로 부드러운 세번강(*Severn stream*)을 통치하네.

사브리나(*Sabrina*), 순수한 처녀인 그녀의 이름:

지난날 그녀는 로크린(*Lochrine*)의 딸,

그는 아버지 브루터(*Brute*)로부터 왕좌를 이어받았네. (380)

‘브루터’는 전설에 등장하는 영국 인종의 창시자이며 잉글랜드의 첫 왕인, ‘로크린’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레이철에게 브루터라는 이 이름은 원래 그 단어의 뜻에 해당하는 짐승 같은 야수성과 폭력성을 상기시킨다. 스완슨(Diana L. Swanson)은 브루터가 로크린의 어머니 이그노게(*Ignoge*)를 그리스에서 유괴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밀턴의 이 시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영국 국가의 전설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의미가 함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98). 따라서 델러웨이에게 갑자기 키스를 당하고 “남자들은 짐승”(87)이라고 하였던 레이철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브루터’와 같은 남성의 폭력성이며, ‘고삐와 로크린’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 레이철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고 예측당하는 삶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삶이 억압당하는 현실에 대한 레이철의 두려움과 공포, 분노는 무의식적 환영으로 나타난다. 레이철은 환영 속에서 칼을 들고 남성의 머리를 자르는 늙은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된다(395). 레이철이 환영에서 보게 되는 칼을 든 늙은 여성은 실제로 그녀가 호텔의 뒤뜰에서 본 닭을 잡는 거의 8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293-94) 다른 여성의 이미지로 치환된 것이다. 그녀의 환영에서 노부인은 닭이 아니라 남성의 머리를 자르고 있

다. 레이철은 그녀의 무의식에서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적 규범에 의해 비판받는 남성의 머리를 자르는 여성의 이미지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를 표출한다. 쇼왈터(Elaine Showalter)는 19세기말 신여성의 등장에 반발하여 여성 혐오증을 보이는 문학과 그림이 나타난 사실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작품에서 재현되는 여성들은 약탈자, 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요부 등으로 나타난다. 쇼왈터는 예를 들어 호프만(Ludwig von Hofmann)의 『순수의 계곡』(*The Valley of Innocence*)(1897)에서 몸집이 거대한 사춘기의 소녀가 장난감 같은 남자의 알몸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 속의 소녀 옆에는 칼이 있고 머리 잘린 남성의 몸이 쌓여 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남성들의 행렬속에서 남성들이 학살당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1990, 10). 레이철은 닭이 아니라 남성의 머리를 자르는 노부인의 환영을 통해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는 남성적인 가치와 남성의 폭정에 대해 무의식적 보복을 실현한다. 레이철은 이 환영을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이것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적인 가치 사이에서 그녀가 겪는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다.

열병의 상태에서 레이철은 점점 의식을 잃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녀를 억압하는 현실의 충돌하는 가치들로부터 벗어나 점점 자유를 향해 다가간다. 그녀에게 죽음은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유롭게 흐르는 바다에 몸을 맡긴다.

그녀는 끈적끈적한 깊은 물웅덩이 속에 빠져, 결국 그녀의 머리까지 잠겨버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이외에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것은 머리 위를 흐르는 바다의 소리였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고 바다 밑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거기에 그녀는 누워서 때로는 어둠을, 때로는 빛을 보는 동안 바다 밑바닥에서 가끔씩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뒤집었다. (397-98)

레이철이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한 것은 자유로운 주체이다. 그러나 레이철의 욕망은 표현될 수 없다. 남성중심적인 결혼제도 속에서 여성의 욕망은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하고 다시 바다 속 오랜 침묵의 세계로 가라앉고 만다.

III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적인 상징질서 속에서 여성의 욕망은 표현될 수 있는 출구가 가로막혀 있다. 울프는 글쓰기를 통해 남성들에 의해 전유당한 상징계(the Symbolic)의 지반을 위태롭게 하여 여성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울프가 여성작가로서 공통적인 운명 속에서 여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겠다고 했을 때, 이 기다림은 단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기다림이다.

그녀는 나는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관한 진실을 말할 때 남성들이 충격 받지 않을 정도로 문명화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소설의 미래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자유로운 말하기를 견디기 위해 얼마만큼 교양 있게 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1978, xi)

울프에게 『출항』은 여성의 “욕망을 조정하고 그 대상을 특화시키며, 그 속에서 주체가 취하는 위치를 지정하여” 그녀가 “어떻게 욕망할 것인가”(Žižek 1991, 6)를 강제하는 남성 중심의 체제를 비판하며 여성의 욕망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비록 울프는 『출항』에서 레이철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노정을 중간에서 멈추게 하지만, 레이철의 죽음은 여성을 억압하는 삶에 대한 출구와 전망을 찾지 못한 작가가 자신이 현실적 모순을 상상적, 상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울프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으로 종결되는 로맨스 플롯이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레이철의 목소리는 죽음과 더불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만, 울프의 『출항』은 여성의 욕망과 자기실현이 남성에게 의해 전유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울프의 글쓰기는 레이철과 같은 여성이 말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그녀의 첫 작품인 『출항』은 이러한 작업을 위한 작가의 기나긴 여정으로의 출항이 되는 것이다.

(연세대)

인용 문헌

- 맹정현, 『라캉과 쿠끄 · 보드리야르: 현대적 시선의 모험』, 『라캉의 재탄생』, 김상환, 홍준기 엮음.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178-90.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비트머, 페터. 『욕망의 전복: 자끄 라캉 또는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홍준기, 이승미 옮김. 서울: 한울, 1998.
- Braidotti, Rosi. *Nomadic Subject: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New York: Columbia UP, 1994.
- Burton, Antoinette M. "The White Woman's Burden: British Feminists and 'The Indian Woman,'" 1865-1915. *Western Women and Imperialism: Complicity and Resistance*. Ed. Nupur Chaudhuri and Margaret Strobel. Bloomington: Indiana UP, 1992. 177-188.
- Cixous, Hélène. "The Laugh of the Medusa." *Feminisms: An Anthology of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Ed. Royn R. Warhol & Diane Price Herndl. New Brunswick: Rutgers UP, 1993. 334-49.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0.
- DuPlessis, Rachel Blau. *Writing beyond the Ending: Narrative Strategies of Twentieth-Century Women Writers*. Bloomington: Indiana UP, 1985.
- Freud, Sigmund. *The Freud Reader*. Ed. Peter Gay. New York: Norton, 1995.
- Froula, Christine. "Out of the Chrysalis: Female Initiation and Female Authority in Virginia Woolf's *The Voyage Out*." Ed. Eleanor Jane McNees, *Virginia Woolf: Critical Assessments* Vol. 3. Mountfield: Helm Information, 1994. 57-83.
- Fullbrook, Kate. *Free Women: Ethics and Aesthetics in Twentieth-century Women's Fiction*. Philadelphia: Temple UP, 1990.
- Heath, Stephen. *The Sexual Fix*. London: Macmillan, 1982.
-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rter and Carolyn

- Burke. Ithaca: Cornell UP, 1985.
- Lacan, Jacques. *Écrits*. New York: Norton, 1977.
- _____. *Book XX: Encore, On Feminine Sexuality: The Limits of Love and Knowledge, 1972-1973*.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Bruce Fink. New York: Norton, 1998.
- _____.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I: The Psychoses 1955-1956*.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Russell Grigg. New York: Norton, 1993.
- Laurence, Patricia Ondek. *The Reading of Silence: Virginia Woolf in the English Tradition*. Stanford: Stanford UP, 1991.
- Lewis, Jane. "Introduction: Reconstructing Women's Experience of Home and Family." *Labour and Love: Women's Experience of Home and Family, 1850-1940*. Ed. Jane Lewi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1-24.
- Mackay, Jane and Pat Thane. "The Englishwoman." *Englishness: Politics and Culture 1880-1920*. London: Croom Helm, 1986. 191-229.
- Peach, Linden. *Critical Issues: Virginia Woolf*. New York: St. Martin P, 2000.
- Phillips, Kathy J. *Virginia Woolf against Empire*.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94.
- Showalter, Elaine. *The Female Malady: Women, Madness and English Culture, 1930-1980*. New York: Pantheon Books, 1985.
- _____. *Sexual Anarchy: Gender and Culture at the Fin de Siècle*. New York: Viking, 1990.
- Swanson, Diana L. "'My Boldness Terrifies Me': Sexual Abuse and Female Subjectivity in The Voyage Out."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1(Winter 1995): 284-309.
- Vicinus, Martha. *Independent Women: Work and Community for Single Women 1850-1920*. Chicago: U of Chicago P, 1985.
- Woolf, Virginia. "Speech of January 21 1931." *The Pargiters: The Novel-Essay Portion of The Years*. Ed. Mitchell A. Leaska. London: Hogarth P, 1978. xxvii-xliv.
- _____. "Professions for Women." *Virginia Woolf: Women and Writing*. Ed. Michèle

Barrett. London: Women's Press, 1979. 57-63.

_____. *A Room of One's Own*. Oxford: Oxford UP, 1992.

_____. *The Voyage Out*. Oxford: Oxford UP, 1992.

_____. *Three Guineas*. Oxford: Oxford UP, 1992.

Žiž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_____.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Cambridge: The MIT P. 1991.

Abstract

The Voyage Out: A Young Woman's 'Voyage Out' and Her Desire

Kum-Joo Kim

During the 19th century various public adventure stories contributed to celebrating the male-centered British imperialism. Woolf undermines the masculine imperial romance that presents men's expeditions and adventures. She shows that a 'voyage out' for women cannot be an opportunity for their self-accomplishment for the voyage controlled by the male-centered Symbolic Order cannot but limit women's desire.

In *The Voyage Out*, Woolf represents that the male-centered social, ideological fantasy controls Rachel's desire, and has her learn how to desire. A voyage into the world and the relationship with people whom she gets acquainted with on the voyage may help to educate young and inexperienced Rachel, and her spiritual growth. The Englishmen who Rachel meets on her journey are intelligent and educated, but the value they pursue turns out masculine and imperial one that subjugates and dominates the sexual as well as the racial other. Therefore, the Englishmen's influence on Rachel does not help her facilitate her self-realization. Little by little, Rachel confronts the masculine ideological fantasy, and resists to conform it. She wants to be free like the wind, or the sea. In the male-centered society, a marriage would be oppressive for Rachel, and silence her desire. Woolf represents symbolically the reality of women's condition in her days that forecloses the future for women who voyage out.

■ 주제어 : desire, imperialism, the Symbolic Order, the ideological fantasy, the sexual and racial other(욕망, 제국주의, 상징질서, 이데올로기적 환상, 성적 인종적 타자)